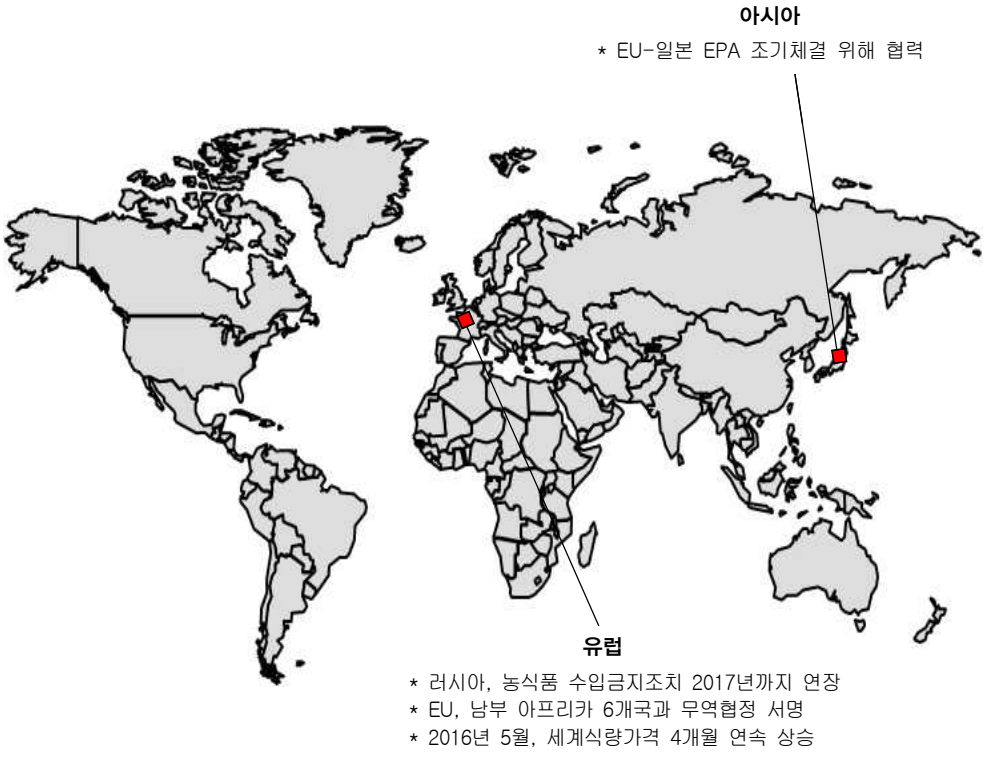
PART 6

해외 농업·농정 동향

1. 러시아, 농식품 수입금지조치 2017년까지 연장
2. EU, 남부 아프리카 6개국과 무역협정 서명
3. EU-일본 EPA 조기체결 위해 협력
4. 2016년 5월, 세계식량가격 4개월 연속 상승

해외 농업·농정 동향 (2016. 6)



러시아, 농식품 수입금지조치 2017년까지 연장

❑ 러시아, EU 농식품 수입금지조치 2017년 말까지 연장 계획

❍ 러시아는 2017년 말까지 EU를 포함한 서방시장의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금지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힘.

- 러시아는 2014년 8월 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EU, 미국, 캐나다, 호주, 노르웨이로부터의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제재를 가한 이후 계속 연장해 오고 있음.
- 러시아 총리(Dmitry Medvedev)와 농업부 장관(Alexander Tkachev)은 올해 8월 이후 2017년 말까지 EU와 미국의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금지하는 금수조치(embargo)연장에 대한 초안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.

❍ 그러나 유아용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가금류, 쇠고기, 냉동 및 건조 채소의 수입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힘.

- 2016년 6월 1일, 러시아 부총리(Arkady Dvorkovich)는 제안에 따라 유아용식품 제조에 필요한 일부 농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.

❍ 러시아 농업부는 이미 2017년 말까지의 수입금지조치 연장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음.

- 러시아 농업부 장관(Alexander Tkachev)에 따르면 동 초안법령은 수입금지 농산물 목록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수입금지 기간의 연장만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함.

❍ 앞서 러시아 총리(Dmitry Medvedev)은 국내 농업생산자들이 농업부문 투자계획에 필요한 기간 연장을 요구하자, 현재 수입금지조치 종료에 따른 또 다른 12개월 갱신이 아닌 2017년 말까지 수입금지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초안 법령을 마련함.

- 러시아 농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지난 G-7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러시아 제재유지 선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함.
- 일본에서 개최된 G-7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해결을 위한 민

스크 평화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논의되었음.

유아용 식품

- 러시아 부총리(Arkady Dvorkovich)에 따르면 금수조치(embargo)는 현재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며, 이변이 없는 한 금수조치 연장을 위한 초안 법령이 승인될 것이라고 함.
  - 그러나 러시아 부총리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유아용 식품제조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수입금지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힘.

- 지난 달 러시아 농업부 장관(Alexander Tkachev)과 프랑스 농업부 장관(Stephane Le Foll)이 참석한 파리회의를 통해 EU측은 러시아가 EU농산물 및 농식품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.
  - 최근 프랑스 하원은 러시아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.

-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금년 8월까지의 수입금지 시장목록에 알바니아(Albania), 몬테네그로(Montenegro), 아이슬란드(Iceland), 리히텐슈타인공국(Principality of Liechtenstein)을 추가 확대함.

유제품

- 러시아의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금지조치는 EU수출업자의 비용이 높였으며, 특히 러시아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리투아니아(Lithuania), 에스토니아(Estonia), 라트비아(Latvia), 핀란드(Finland) 등 발트국 생산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침.

- 특히 유제품부문에 대한 강력한 수입금지조치는 EU우유생산쿼터제 폐지와 맞물려 가격하락과 함께 낙농시장에 파장을 일으킴.
  - 최근 리투아니아는 낙농산업 침체로 EU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EU예산의 특별재정지원을 요청함.

- 핀란드 최대 낙농생산자 중 하나인 Valios는 성명을 통해 핀란드 서남부의 탐페레(Tampere)지역 생산시설 폐쇄의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시장 손실을 언급함.
  - 세계 우유시장은 러시아의 EU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지속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으며 세계 우유 과잉생산과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유제품 가격이

매우 낮은 수준임. 또한 EU의 우유생산쿼터제 폐지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함.

※ 자료: Agra Europe Weekly(2016.06.01.)

EU, 남부 아프리카 6개국과 무역협정 서명

❑ EU, 남부 아프리카 6개국과 무역협정 서명

❍ EU는 남부 아프리카 6개국과 농산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함.

- 남부 아프리카 6개국은 보츠와나(Botswana), 레소토(Lesotho), 모잠비크(Mozambique), 나미비아(Namibia) 스와질란드(Swaziland), 남아프리카공화국(Republic of South Africa)임.

❍ 동 무역협정으로 남부 아프리카 시장은 점차 부분적으로 EU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, EU가 100여개 이상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리적표시(Geographical Indication, GI) 품목을 인정하는 대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50개 이상의 EU지리적표시 품목을 인정할 예정임.

❍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(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, SADC)의 경제동반자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, EPA)을 구성하는 아프리카 6개국은 6월 10일, 보츠와나에서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서명함.

- 동 협정은 EU와 SADC EPA그룹에 의해 10년간의 협상 후 2014년 7월에 합의되었으며, 지난 주 EU집행위원회의에서 승인되었음. 그러나 동 협정은 유럽의회, EU회원국,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.

❍ 보츠와나, 레소토, 모잠비크, 나미비아와 스와질란드의 경우 상이한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무기와 군수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 EU시장접근 권한이 부여될 것임.

❍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, 기존의 EU와의 양자간 무역, 개발 및 협력협정(Trade,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, TDCA)이 강화되고, 96.2%의 물품에 대한 완전한 EU 수입관세 면제와 2.5%물품에 대한 부분적 EU수입관세 면제 혜택이 보완될 것임.

❍ 동 무역협정은 EU수출측면에서 비대칭적(asymmetric) 무역협정임.

-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동 무역협정을 통해 EU시장으로의 수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지만, EU수입물품 중 국제적으로 경쟁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유지할 것임.
- 남아프리카공화국, 보츠와나, 레소토, 나미비아와 스와질랜드는 EU수입품목 74.1%에 대해 완전한 관세 철폐와 수입품목 12.1%에 대한 부분적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. 반면 모잠비크는 74%의 품목에 대해서만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.

❍ 또한 동 협정은 EU수입 증대로 인해 남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산업 또는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, EU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 있는 5개의 안전장치 조항을 포함함.

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

❍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동 무역협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32개의 농산물(특히 설탕, 와인, 에탄올 등)의 EU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.
- 남아프리카의 약 15만 톤의 설탕은 처음으로 EU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며, 이전 4,700리터 수준이었던 와인은 1억 1,000만 리터 수준까지 무관세가 허용될 것임.
- 반면 에탄올의 무관세 할당은 8만 톤으로 허용되었음.

❍ 동 협정으로 EU의 밀, 보리, 치즈, 돼지고기 등의 수출품목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으로의 특혜적 접근성이 확대될 것임.

❍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또한 서로의 지리적표시(GIs) 보호 인정을 합의함. EU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05개의 지리적표시 식품을 인정할 계획이며, 그 대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총 251개의 EU지리적표시 식품을 인정할 것을 합의함.

❍ EU는 남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임.
- 2015년 기준 EU는 남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약 320억 달러의 광물류과 금속류 수입하였으며,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기계류, 자동차, 화학제품류 등을 수출하였음.

※ 자료: Agra Europe Weekly(2016.06.10.)

EU-일본 EPA 조기체결 위해 협력

❑ 각국 정상, EU-일본 경제연계협정(EPA) 조기체결 위해 협력

❍ EU회원국 정상들과 일본 총리(安倍晋三)는 EU-일본 경제연계협정(EPA) 연내 타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함.

- 2016년 5월 24일, 일본에서 개최된 G7정상회담 이후 EU집행위원회 위원장(Jean-Claude Juncker), EU정상회의 상임의장(Donald Tusk), 프랑스 대통령(François Hollande), 독일 총리(Angela Merkel), 이탈리아 총리(Matteo Renzi) 그리고 영국 총리(David Cameron)는 공동성명을 발표함.
-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실질적 진전과 이룩한 성과를 고무적으로 평하며,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진행될 협상에서 건설적인 태도로 관세 및 비관세조치 등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하였음.

❍ EU-일본 EPA와 관련하여 총 16개의 공식적인 협상의제가 있으며, 최근 협상은 지난 4월(11일~20일) 진행되었음.

❍ 지난 5월 초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협상관련 보고서에 따르면, 일본은 EU의 초기 제안과는 달리 많은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, EU농산물 수입품목 확대 등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.

❍ 일본은 국내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외국 농산물 및 식료품 시장개방을 엄격히 제한하여왔음.

-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지금까지 식품관련 수입의존도를 40%수준으로 엄격히 유지해왔음.
- 최근 EU로부터의 가축사료, 사료첨가제, 해산물 수입만을 일부 허용하였으나, 동물보건 및 공중위생과 관련된 육류수입은 금지하고 있음.

❍ EU생산자들을 위한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논쟁적인 문제로 간주되며, 협상 타결 압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본 농업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.

- 반면 최근 이탈리아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협상을 타결함.

※ 자료: Agra Europe(2016.05.27.)

2016년 5월, 세계식량가격 4개월 연속 상승

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세

❍ 세계식량기구(FAO)에서 발표한 식량가격지수(Food Price Index)에 따르면 2016년 5월,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대비 2.1% 상승한 155.8포인트를 기록함.

- FAO 식량가격지수는 곡물, 유지류, 육류, 유제품, 설탕 등의 품목에 대한 국제무역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매월 발표함.

❍ 지난 4월 대비 유지류를 제외한 전반적인 세계 식량가격이 상승함.

- 세계 식량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, 전반적인 식량가격 수준은 전년동월 대비 약 7%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상승세를 보임.

❍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설탕가격이 전월대비 11.7%증가한 240.4포인트로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, 육류, 곡물, 유제품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, 식물성 유지류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.

- 세계 2위 설탕 생산국인 인도 생산전망 악화와 중국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 증가 전망이 설탕가격 상승세를 이끌었음.
- 반면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높은 수출 가용량과 풍작에 따른 수확량 증대 전망이 그나마 가격 상승을 제한함.

품목별 동향

❍ 곡물류가격은 전월대비 1.6% 상승한 152.3포인트를 기록하였음.

- 옥수수가격이 수급불균형 전망으로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, 쌀 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수출 가용량에 우려와 인디카(indica)품종 등 수입 수요 증가로 상승하였음. 한편 밀 가격은 충분한 공급량과 양호한 생산 전망으로 소폭 상승함.

❍ 한편 육류가격은 아시아의 활발한 수입수요에 힘입어 EU돼지고기 가격은 2%까지 증가함.

❍ 전년동월 대비 24% 낮은 수준인 유제품류는 전월대비 0.4% 상승한 128포인트를 기록하였음.

- EU내 유제품 가격 상승과 전지분유와 버터 등 유제품에 대한 꾸준한 국제 수요에 기인함.

❍ FAO는 탈지분유에 대한 국제 시세는 EU의 개입가격(intervention price)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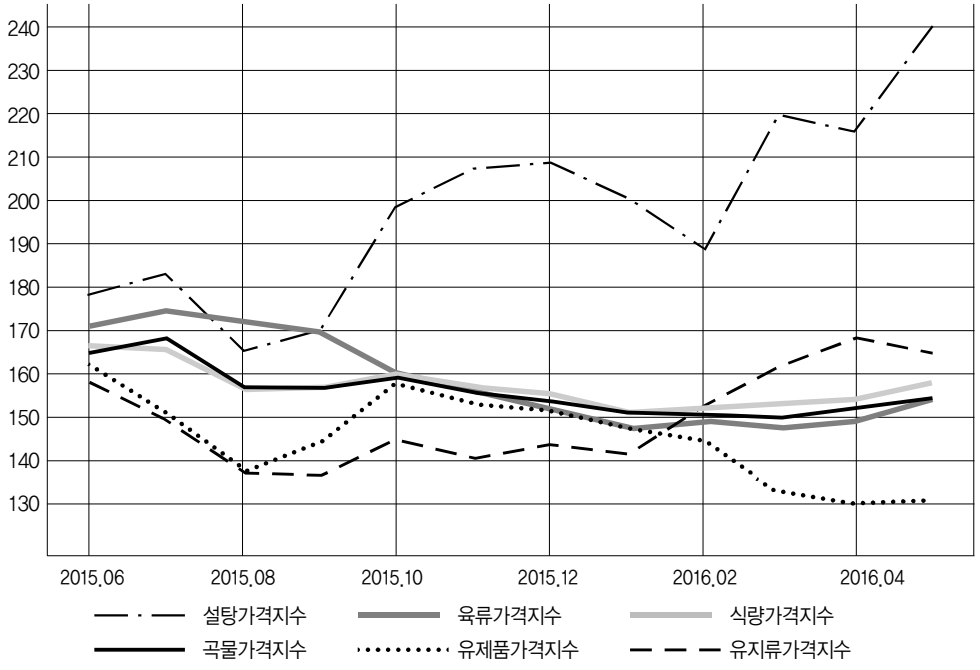
❍ 반면 식물성 유지류는 팜유가격 하락으로 지난 4월 보다 1.8%하락한 163.3포인트를 기록하였음.

- 팜유가격 하락은 중국, 인도, EU의 예상보다 낮은 수입수요와 말레이시아의 수출 가용량 증가에 기인함.

❍ FAO는 2016년 세계 곡물생산량을 2014년 보다 0.7% 낮은 25억 4,300만 톤으로 전망함.

- FAO에 따르면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년대비 1.9%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

그림 1 FAO 세계식량가격 지수 (2002–2004)



주: FAO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됨.
자료: Agra Europe(2016).

에 세계 주요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
※ 자료: Agra Europe Weekly(2016.06.02.)

자료 작성 : 홍예선 연구원